



반세기 간 촘촘히 정리한 자료로 한국 미술사의 기저 탄탄히 다져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 ‘미술계 114’로 불리는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이 일평생 아카이브를 수집하여 한국 미술사의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한 ‘2023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수집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긴다는 그는 오늘도 내일의 역사가 될 순간들을 바지런히 기록하고 수집한다.

글 문지혜 기자 사진 우인재 기자

남다른 안목과 우직한 욕심으로 한국 미술계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의 삶은 그야말로 적토성산積土成山の 표본이다. 도판 한 장, 기사 한 편에서 ‘고귀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발견한 그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온 전 시장을 쏘다니며 팸플릿과 도록 등을 부지런히 그러모았다. “그런 종이 쪼가리 모아서 돈이나 벌겠느냐”, “편집광적이다”며 비아냥거리던 이들의 비웃음에도, 자료더미의 무게에 짓눌려 목과 척추에 생긴 종양을 수차례 수술한 뒤에도 그저 묵묵히 나아갔다. 무려 반세기 동안.

한국 근·현대 미술과 자료들을 정성스레 수집·보존하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해온 김달진 관장이 한국 미술사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9일(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박물관·미술관인 신년 교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김달진 관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사립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월 9일(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박물관·미술관인 신년 교례회’에서 김달진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습.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많은 선배 관장님들 조언에 귀 기울이며 더 발전해나가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뮤지엄이 겪는 어려움을 기억해주십사 합니다. 많은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창립자의 헌신과 (사)한국 박물관협회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뮤지엄들이 자립해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록을 전시, 출판물 등으로 재창조

2008년, 수준 높은 한국미술 아카이브를 토대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설립한 김달진 관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박물관 관장, 서울아트가이드 발행인, 미술계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로서 온·오프라인을 중횡무진하며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를 수집·분석하여 한국 미술사의 맥락과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대중과 공유해왔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소장한 미술교과서만 하더라도 해방 이전에 제작된 것부터 현대의 것까지 380종에 달하며 근현대 미술계 주요 작가 350여명의 팸플릿, 전시 도록, 기사 등을 모아 정리한 스크랩북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국립기관조차 소장하고 있지 않은 희귀사료부터 체계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수많은 미술계 전문가 및 애호가들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故천경자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대 교수, 김신웅 한국근현대회화연구회 대표, 도쿄국립박물관 등록실장겸 대여특별관 람실장인 다라시마 사도시 등 주요 내방객들의 방명록 자체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아카이브와 다름없다. 201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내방한 이병현 (주)더리서치 대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사전에 ‘미술아키비스트’ 직업을 새로이 등재하기도 했다.

김달진 관장은 자료가 지닌 팩트에 사회적 의미와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새로이 재가공해내는 데도 탁월하다. 소장자료를 특정 테마로 엮어 <현대 미술 해의 진출 60년>, <외국 미술 국내 전시 60년>, <한국 미술단체 100년>,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 등 30회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23종의 도록을 남겼으며 국내 주요 문

화기관 및 연구자들의 아카이브 운영 사례 등 아트아카이브의 핵심을 정리한 《라키비움 프로젝트 자료집》, 《한국 미술잡지 목차》 등 한국미술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9권을 펴냈다. 또한 2002년부터 미술계 이슈와 소장자료 정보 등이 집약된 월간지 <서울아트가이드>를 달달이 발행하고 있으며 미술정보 포털 사이트인 ‘달진닷컴’ 등 온라인 채널을 구축, 1950년대부터 발행된 한국미술잡지 목차 및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아카이브협회 초대회장으로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프로그램 ‘라키비움’을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한국박물관협회 지원으로 박물관 사상 처음으로 웹드라마마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 8부작을 제작하기도 했다. 일평생 값진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한국 현대 미술계의 기초 사료로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나눠온 김달진 관장. 오는 6월에는 그간의 궤적을 정리해 도서 《수집에서 공유로》(가제, 아트북스 발행)를 발행할 예정이다. 휴일도, 밤낮 없이 하루마다 뻘뻘이 채워진 일정이 버겁진 않았을까.

“명화 스크랩북을 만들었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집하는 게 마냥 좋아서 해왔던 건데, 이제는 수집을 ‘사명감’ 내지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됐지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긴 하지만, 이를 꺼안고 나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진화해온 것 같아요.”

종이신문 15종의 미술계 헤드라인 읽어주는 유튜브

김 관장은 최근 유튜브에 주력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출판물보다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데다 지면에선 표현할 수 없는 행사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기록할 수 있기 때문. 2018년 10월 말부터 유튜브 채널 DJ Muse를 운영 중이다. 여타 유튜버들이 통상 일주일에 약 두어 개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 비해 김 관장은 일주일에 10여 개를 업로드할 정도로 공을 들인다. 현재 구독자의 수는 2,950명, 영상 개수는 2,190개다(1월 15일 기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총 4개로 ‘미술계 소식’에서는 종이신문 15종을 포함해 <부산일보>, <광주일보> 등 대표 지방지, 연합뉴스, 뉴시스에 실린 미술계 주요 이



슈의 헤드라인과 키워드를 전한다. ‘김달진이 가다’에서는 주요 전시장, 기자 간담회 등의 미술계 현장 풍경을 직접 방문해 스케치한 영상을 다루며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에선 김 관장이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자하는 주요 전시 및 행사 내용을 소개한다. ‘작가와 함께’는 박물관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특정 작가의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코너다. 김달진 관장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영상을 제작하며 일부 아트코리아방송과 협업하여 만들기도 한다. 동영상을 완성한 뒤에는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페이스북, 연구소 달진닷컴, 트위터 계정, 관장이 포함된 7~8개의 단톡방에 동시에 업로드하여 공유하기에 콘텐츠에 대한 전파력이 뛰어나다. 한마디로, 그의 존재 자체가 ‘매체’인 셈이다.

“주요 일간지의 소식을 요약해 만든 ‘미술계 소식’ 등이 유익하다곤 생각하면서도 노력에 비해 조회수가 많지 않

고, 전시회 주최 측에서 만드는 동영상의 품질이 제 것보단 훨씬 좋으니 어떨 땐 ‘이걸 지속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영상을 통해 텍스트에는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를 기록하고, 이를 박물관이 소유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며 꾸준히 해나가고 있지요.”

민화 화단에서도 늦기 전에 중요아카이브 수집해야

일평생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흐름을 꼼꼼히 살피온 김달진 관장, 그가 바라본 현대민화 화단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중 한 명인 이우환 화백도 일찍이 우리 민화가 지닌 미학적 가치를 알아보고 1975년에 일본 출판사 고단샤를 통해 저서 《구조로서의 회화 - 이조의 민화에 대해서》를, 1977년 한국에서는 열화당을 통해 《이조의 민화: 구조로서의 회화》를 발간하기도 했지요. 최근 몇 년 사이 민화붐이 일기도 했지만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학원 등 체계적인 교육제도에 힘입어 작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민화도 현대미술의 한 장르라 당당히 부를 수 있을 만큼 작품들이 업그레이드 됐으니 민화 작가들도 스스로 자긍심, 자존감을 가져야할 때라고 봅니다.”

국내 제1호 미술아키비스트로서 민화 화단의 아카이브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민화 화단에서도 민화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결국 내일의 ‘과거’요, ‘역사’아닙니까. 2003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사진미술관 한미미술관이 사립연구소를 갖고 작품뿐 아니라 아카이브를 모아 2022년 사진전문 미술관인 뮤지엄한미로 재개관하며 발돋움했듯 민화계에서도 국가가 아카이브 사업을 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화박물관에서든, 월간민화에서든 너무 늦기 전에 중요한 아카이브를 수집해둬야 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자료를 잘 축적해놓으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반세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조언일 터, 김달진 관장은 오늘도 역사를 수집하며 한국 미술사의 기층을 일군다. 그 옥토 위에서 우리 문화는 더욱 찬란히 피어나리라. **민화**